

『五先生禮說分類』의 편차와 그 의의

鄭景柱*

■ 차례 ■

1. 서설
2. 『오선생예설분류』의 편찬 의도와 편차
 - 1) 『오선생예설분류』의 편찬 경과
 - 2) 『오선생예설분류』의 편찬 의도
 - 3) 『오선생예설분류』의 편차
3. 『오선생예설분류』의 예학사적 의의
4. 결어

【국문초록】

이 글은 한강 정구의 저술인 『오선생예설분류』의 당초 편찬 과정과 편차를 중심으로 이 책의 편찬 의도를 살펴봄으로써, 이 책의 편찬 의의를 밝히고, 한국예학사에서 이 책이 가지는 중요성을 천명하려는 의도에서 집필되었다.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선생예설분류』는 宋代 道學者들에 의하여 제기된 禮學 이론과 그들에 의하여 講究된 각종의 禮制에 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集成 分類 정리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예학 논의와 연구의 바탕을 마련한 책이다. 이 책은 가정의 의식 표준을 제안하는 데 그친 『주자가례』의 정해진 體例와는 달리, 국가의 儀典과 가정의 儀式을 冠婚喪祭와 雜禮라는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분류함으로써, 가정의례와 국가의

* 慶星大學校 인문문화학부 한문학 전공 교수

典禮를 통합하는 예학체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본고에서는 이 책이 송대 성리학자들의 예설을 분류 정리함으로써 성리학자들의 예학 관점과 예설 取舍의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선예학의 학문논의의 전환점을 여는데 무엇보다 중대하게 기여하였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 책은『가례』에 명시되지 않은 주자의 예설과 『가례』의 내용을 비교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자 예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주자가 『가례』를 편찬한 본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자의 평소 또는 晩年 定論에 의거하여 『가례』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주자가례』의 관혼상제 세부 節次와 器物 규정의 해석에 골몰하였던 당시 학자들에게 예학을 통한 修齊治平의 이상 실현이라는 예학 實用의 시야를 열어줌으로써, 조선 후기 예학 담론의 수준을 끌어올려 禮書 편찬과 예학 논의의 새로운 典範을 보여줌으로써 예학 논의의 시야를 확대하고 그 정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주제어

예설(禮說), 예학(禮學), 종시론(從時論), 종속론(從俗論), 의기설(義起說)

I. 서설

寒岡 鄭述는 조선왕조의 학술사에 있어서 禮學의 학문 토대를 정립한 학자이다. 그는 性理學과 經學, 역사, 지리, 문학 등 다방면에 걸쳐 중요한 저술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五先生禮說分類』와 『五服沿革圖』 등은 조선중기 禮學 담론의 전환기를 가져온 매우 중요한 저술이다.

조선 초기 조정에서는 국가의 典禮를 확립하고 사대부 사족 가정의 일상생활에 儒家 冠婚喪祭의 의식을 정착시켜 禮俗을 개량하려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대부 관료들에게 『朱子家禮』의 準用을 널리 권장하였다.

성종조에 이르러 『國朝五禮儀』를 편찬 반포하여 국가의 典禮를 정립하는 한편, 사대부와 서민의 관혼상제 의식에 通用하게 하자, 사대부 학자들은 『五禮儀』의 규정과 『주자가례』의 의식 절차를 절충하여 점차 나름대로 일정한 규범을 수립해 나갔으므로, 『주자가례』의 정확한 이해는 학자들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 朱子學에 대한 연구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주자가례』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 논의가 점차 확대 되어 가고 있었던 시점에서, 이 책은 조선조 사대부 관혼상제의 의식 표준으로 권장되었던 『가례』를 저술한 朱子의 예학 이론과 그 배경을 이해 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함으로써, 조선조 예학의 학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오선생예설분류』의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은 宋나라 성리학자들의 예학 관련 논의를 편집 분류함으로써, 朱子는 물론 주자가 계승하였던 宋儒들의 예학 관점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책이라는 점이다. 이 책은 朱子를 대표로 하는 宋代 성리학자의 예학 이론을 일정한 체계로 갖추어 편성한 예학이론서이다. 예로부터 『儀禮』와 『周禮』, 『禮記』 등의 三禮 經傳과 그 注疏에 고대의 예학 이론이 개진되어 있었을 뿐, 唐나라 杜佑의 『通典』 이래 고금의 예학 이론을 집성하여 논한 서적은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宋代 理學者들은 성리학의 입장에서 예학의 이론체계를 재구성하였는데, 그 이론의 실체를 모아서 살펴볼 수 있는 책은 일찍이 없었다. 『오선생예설분류』는 宋代 理學者들의 禮說을 集成함으로써 송대 이학자의 독특한 예학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찬한 유일한 예학 저술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대한 가치가 있다.

『오선생예설분류』는 寒岡 예학의 주요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저술로,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¹⁾ 받았다. 이 책은 編次와 그 분류체계 및 그 세부 항목과 내용에 있어서 기존의 三禮 경전이나 역대 왕조의 典禮와 다른 것은 물론, 사대부 冠婚喪祭의 규범서로서 『주자가례』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은 한강 예학의 특성을 논하는 중요한 논거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특정 시대 학자들의 예설을 모아 분류한 이 책을, 行禮規範의 표준을 규모 있게 정리한 『주자가례』나, 고대의 예학 문헌을 종합 분류한 『儀禮經傳通解』 등과 단순 비교 대조함으로써 생긴 오해도 적지 않다.

『오선생예설분류』에 나타난 분류체계의 치밀성과 그 특성에 주목한 학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금장태 교수는 한강의 예학 사상을 검토한 논문에서 “宋代 道學者들의 예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류체계에서 그 예학의 치밀성을 확인할 수 있다”²⁾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석과 논증을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아쉬움을 남겼다.

-
- 1) 금장태 「한강 정구의 예학사상」(『유교사상문화연구』 4·5, pp.221-234, 한국유교학회 1992.), 고영진 「17세기 초 예학의 새로운 흐름- 한백겸과 정구를 중심으로」(한국학보 68집, pp.102-139, 일지사 1992.), 李完裁 「한강 정구 선생의 예학」(『동방한문학』 제10집, 1994.), 배상현 「한강 정구와 그의 예학사상」(『유학연구』 제3집, 1995.), 노인숙 「한강 정구의 예학에 관한 연구」(『유교사상연구』제12집, pp.163-182, 1999.), 정경희 「16세기 후반 17세기 초반 퇴계학파의 예학 - 한강 정구를 중심으로」(한국학보 101집, pp.92-120, 2000.), 彭林 「寒岡鄭遠五先生禮說初探」(『남명학연구』 제11집, pp.295-325,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1.), 도민재 「한강 정구의 학문과 예학사상」(『한국사상과 문화』 18집, pp.200-228,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김현수 「한강 정구의 예학사상 『오선생예설』을 중심으로」(『동양예학』 6집, pp.67-93, 동양예학회 2001.), 고영진 「16-17세기 예학의 지역적 분화과정과 그 특징」(『국학연구』 12, pp.17-57, 한국국학진흥원, 2008), 김현수 「한강 정구의 예학 -예문답을 중심으로-」(『한국학논집』 제48집, pp.169-214, 2012).
- 2) 금장태, 「한강 정구의 예학사상」, 『유교사상연구』 4·5집, pp.221-234, 유교학회, 1992.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오선생예설분류』의 당초 편찬 과정과 編次를 중심으로 이 책의 편찬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봄으로써, 이 책의 편찬 의도를 밝히고, 한편으로 이 책과 관련하여 그 동안 학계에서 제기되었던 약간의 오해에 대하여 辨駁을 가하여 바로잡고, 나아가 이 책이 편집 간행됨으로써 과생된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예학사에서 이 책이 가지는 중요성을 천명하고자 한다.

II. 『五先生禮說分類』의 편찬 의도와 편차

1. 『五先生禮說分類』의 편찬 경과

寒岡은 일찍부터 예학에 유의하여 退溪에게 예학을 질의하였다. 退溪集에는 한강이 퇴계에게 올린 6편의 書信이 실려 있는데, 그 중 세 편이 예학에 대한 問目이고, 문목은 모두 88조이며³⁾ 그 내용은 관혼상제의 의식 절차 전반에 걸쳐 있다. 이러한 치밀한 『가례』 연구의 결과로 그는 31세 때 『家禮集覽補註』를 저술하였고, 37세 때는 「昏儀」, 40세에는 「冠儀」를 저술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한강은 청장년기에 이미 당대 학자들 사이에 예학으로 명성이 높았다. 栗谷 李珥의 『經筵日記』 경진년(1580) 4월조에 한강이 창녕현감으로 부임한 기록이 실려 있는데, 거기에 “鄭述는 禮學에 참가하여 律身이 매우 엄격하고 議論이 英發하여 清名이 날로 드러

3) 李滉, 『陶山全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제3책, 『退溪先生全書』 권55, 答鄭道可述 問目 이하 5편.

났다”⁴⁾고 한 것은 이런 사정을 잘 보여준다.

한강이 만력 신해년(1611)에 작성한 「五先生禮說分類序」에 의하면, 『오선생예설』은 61세 때인 선조 계묘년(1603)에 초고를 편찬하고, 10여 년이 지난 萬曆 신해년(1611)에 문도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淨寫하면서 항목을 나누어 분류하여 成冊하였다고⁵⁾ 한다. 또 무오년(1619) 9월에 작성한 한강의 追記에 의하면, 계묘년(1603) 봄에 湖西의 木州에 머물면서 예설의 考闕 편의를 위하여 諸先生의 예설을 분류 편집하여 반 달 만에 초고를 완성하였으나, 원고가 소략하여 간행하지 않고 보관하였다가, 신해년(1611) 가을에 성주에 있으면서 이를 다시 淨寫하고 전말을 기록하여 두었는데, 이 책은 갑인년(1614) 봄에 화재를 당하여 다른 서적과 함께 불타버렸다⁶⁾고 한다.

그런데 갑인년 화재 때 『오선생예설분류』 전부가 모두 소진된 것은 아니고, 일부가 남아있던 것으로 보인다. 한강의 문도인 東湖 李儼의 「寒岡先生言行錄」에는 다음 글이 보인다.

선생께서 일찍이 『五先生禮說類輯』 7책을 편집하였는데 또한 반이 화재에 불탐을 면치 못하였다. 선생께서는 속환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후학을 불러 모아 밤낮을 쉬지 않고 수많은 서적을 상고하고 대조하여 수년을 거쳐 다시 책을 완성하였다.⁷⁾

4) 李珥, 『栗谷先生全書』 卷30, 「經筵日記」 三, 萬曆八年庚辰: 以鄭述爲昌寧縣監 述謹於禮學 律身甚嚴 議論英發 清名日著 屢拜官不就. 至是上京拜命 上引見 扣其所學 天語溫諄 聞者感激. 述乃赴任.

5) 鄭述, 『五先生禮說分類 前集』, 「五先生禮說分類序」.

6) 鄭述, 『五先生禮說分類 後集』 권12, 「編禮」 말미의 追記.

7) 李儼 『東湖先生文集』 卷2, 「寒岡先生言行錄」: 先生嘗纂集五先生禮說類輯凡七冊 而亦不

이 증언에 의하면 한강은 초고본 『오선생예설분류』는 집안의 화재로 그 절반 정도가 불에 타고 일부는 남은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한강은 이 책이 불탄 이후, 매우 애석하게 여겨 이 책의 稿本이 혹 다른 곳에 흩어져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사방으로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초고본이 없어진 3년 뒤에 재판집을 시도하면서 東湖 李⁸⁾에게 보낸 서찰의 별지 내용이다.

여기 일대 가소로운 일이 있소. 병든 가운데 혼자만 웃을 수가 없으니 그대도 도와서 꺾꺾 웃어주면 좋겠소. 병이 쌓여 죽어가는 사람이 스스로 이전에 그 책이 있었다고 불탄 뒤 3년이 되도록 사방으로 찾아도 보이지 않음에도, '다행히 보게 되면 禮說 책을 완성할 수 있겠고, 沿革의 책도 복구할 수 있으리라 하면서, 또 전후로 참고하고 이리저리 짐작하던 곳에서는 마치 죽어 이별한 사람을 만나듯 여길 경우가 많아, 세상에 머무른 지 오래지 않아 갑자기 돌아오라 재촉 받게 될까 두려워하면서도, 자기가 죽을 기일이 언제일지는 헤아리지도 않고 감히 베풀 계획을 내어, 아직도 감히 스스로 끊지 못하고 있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도 어리석은 자라 저지하지 않고 도리어 완성하도록 거듭니다그려. 대개 일이야 혹 완성될 수도 있겠지만 다만 죽는 것이 완성된 뒤가 될지 완성하기 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찍이 부지런히 힘써 늙음이 장차 다가오는 줄 모른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부지런히 힘쓰며 죽음이 장차 다가오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이르기를 "내 또한 어찌 죽을 때가 되었음을 모르겠는가? 이 책은 삼대 이래로 없었던 책인데, 가까운 곳에 또 보관해 둘 곳이 없으니, 내가 비록 죽더라도 뒤에 오는 선비들이 전해가며 보도록 남겨둔다면 또한 좋지 않겠는가?"라고 합니다. 그 말이 더욱이 사람으로 하여금 포

免半燼於回祿. 先生於宿疾沈吟之中 召集後學 攷較羣書 不輟晨夜 經數年而復爲成書. 臨事倉卒之際 節目森列備具 使後之學者 得免散漫難究之患 其有功於斯文 不其重且大乎.

8) 竹 아래 舒

복절도하게 합니다. 근래의 후생 선비 가운데 어찌 예를 좋아하여 읽어보고 자 하는 자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죽을 때가 되어 반드시 성취하라고 하는 말이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9)

이 글에서 ‘禮說’은 『오선생예설분류』를 가리키고 ‘沿革’은 『五服沿革圖』를 가리킨다. 이처럼 초고본이 없어진 뒤에도, 예전에 이 책을 편집할 적에 참고하였던 부분을 다시 대할 적마다 죽어 이별한 사람을 다시 만난 듯 반가워하였다는 말과, 이 글에서 후자의 말로 인용된 ‘이 책은 三代 이래로 없었던 책’이라는 말은, 이 책에 대한 한강의 애정을 잘 보여준다.

이 무렵 徐思遠, 宋遠器 등이 다시 편집할 것을 요청하여, 몇 년의 공력을 기울인 끝에 무오년(1618) 가을에 이르러 비로소 이 책의 재편집을 완성하였다.¹⁰⁾ 완성된 초고는 한강의 별세 뒤에 문도인 訶齋 崔暉이 仁祖 갑자년(1624)에 經筵에 들어가 인조에게 간행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거기에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다.

暉이 또 진언하였다. “선비들의 습속이 아름답지 않아 禮學이 오래도록 폐기되었는데, 禮文이 여러 책에 흩어져 나타나서 참고하기에 어렵습니다.

9) 鄭述 『寒岡先生文集』 卷5 「答李以直書」 別紙: 此中有一大可笑事 病中不堪獨笑 君亦助笑 呵呵爲佳. 積病將死之人 自以曾有其書 而燬後三載. 四求不見 幸而得見 則禮說之書 可以成矣 沿革之書 可以復矣. 又多前參後考左商右酌之處 如得見死別之人 猶恐其留之不久 而遽被催還, 則不計自己死期之久近 敢生謄寫之計 猶不敢自斷. 試問於人 則人亦愚者 不爲沮止 而反又助成之. 蓋事或成矣 但未知其死之在於已成之後乎 未成之前乎. 曾聞僂焉不知老之將至 此則僂焉不知死之將至者矣. 其人之言曰 “吾亦豈不自料其死乎? 此書是三代以下所未有之書 而近方又無有藏置處. 吾雖死 留作後來士子傳看 則不亦宜乎?” 其言尤使人不覺折倒. 近來後生士子中 寧有好禮欲見之者 而乃發此言. 此不過爲臨死必欲成就之言.

10) 무오년(1618)에 작성된 『五先生禮說分類 後集』 권12 「編禮」 말미의 追記에 “朋徒往來 或寫或校 至于累年 而功今始訖”이라 하였다.

『儀禮』와 『禮記』는 卷帙이 너무 많고 私家에서 얻어 보기가 어려우며, 『가례』 또한 매우 간략하고 未備합니다. 鄭述가 이를 우려하여 여러 禮文을 모아서 책을 만들어 周·程·張·朱 다섯 선생의 禮說로 절충하고, 또 우리나라 李滉의 논의를 덧붙여 『李先生禮說』이라 하였는데, 모두 7권입니다. 위로 天子諸侯의 禮와 아래로 士庶人의 常變의 禮에 이르는데, 겨우 책을 완성하고서는 죽었습니다. 바라건대 이 책을 새겨서 나라 안에 반포하여 사람마다 살펴볼 수 있게 한다면 治化에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¹¹⁾

최현이 經筵에 참여한 것은 한강이 별세한 지 4년 뒤이고, 『오선생예설분류』를 아직 간행하기 전이다. 인재의 발언대로라면 한강의 『오선생예설분류』에는 본디 퇴계 이황의 예설을 모아 분류한 『李先生禮說分類』가 함께 덧붙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강이 任屹에게 보낸 서찰에는 그가 충주목사로 있을 무렵에 퇴계의 예설을 초록한 기존의 몇 가지 서적을 참고하여 퇴계의 예설을 일정한 체계로 분류하여 1책으로 정리하려다가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다¹²⁾고 한 말이 있다. 이로 보면 이 책 역시 그 뒤에 완성되어 『오선생예설분류』와 함께 보관되고 있었던 것이다.

인재 최현의 『오선생예설분류』 간행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책의 편찬에 간여한 문생들을 중심으로 간행이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石潭 李潤雨가 기사년(1629)에 담양부사로 부임하자, 전라관찰사 權泰一을

-
- 11) 崔峴, 『訥齋先生文集』 卷6 「經筵講義上○玉堂時」: 講訖 臣峴又進言曰 “士習不美 禮學久廢. 禮文散出諸書 難於參考. 如儀禮禮記 浩繁多秩 私家亦難得見 家禮亦甚簡約未備. 鄭述爲慮此患 哀集諸禮文 撮而成篇, 折之以周程張朱五先生之說 名以五先生禮說. 又以吾東李滉之論足之 爲李先生禮說 總七卷. 上自天子諸侯之禮 下及士庶人常變之禮 僅得成書而歿. 願以此書刊布國中 使人人得以考閱 則庶有裨於治化矣.”
- 12) 『寒岡先生文集』 卷5 「答任卓爾屹」: 李先生禮說前所分類者 却似未穩 去年在湖西 略槩括更爲繕寫 而猶未愜意. 又於京中友人處 借得一本 頗有詳略異同. 欲合併爲一冊 而刪復添闕, 工夫不易 亦未有寫手 時未成就焉.

비롯하여 나주목사 辛啓榮, 광산현감 李惟達, 순천현감 姜大進, 무안현감 金轅 등과 논의하여 각 고을에 나누어 관각하고, 旅軒 張顯光의 발문을 붙여 전집과 후집을 합쳐 7책으로 간행하였다.

2. 『오선생예설분류』의 편찬 의도

『오선생예설분류』는 송대 성리학자들의 예설을 前集과 後集으로 나누어 분류 편찬하였다. 전집에는 天子·諸侯와 관련된 예설을 冠禮·昏禮·喪禮·祭禮 및 雜禮로 분류하여 실었고, 후집에는 사대부 및 서인 관련 예설을 역시 冠·昏·喪·祭와 雜禮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오선생예설분류』에서 天子諸侯와 士大夫 및 庶人に 대한 예설을 관혼상제 및 雜禮로 분류하여 전집과 후집으로 구분하여 수록한 것을 두고, 이 책의 편찬 의도에 대하여 그동안 논자들 사이에는 몇 가지 해석이 제기되었다. 그 중에는 ‘『주자가례』와 달리 古禮에 근거하여 천자·제후의 예와 사대부의 예를 구분하여 항목을 정하여 천자제후와 사대부간에 서로 다른 예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¹³⁾고 하거나, 또는 ‘주자의 『儀禮經傳通解』를 모범으로 하고 古禮를 참조하여 家·鄉·邦國·王朝禮를 균형있게 복원하는 것¹⁴⁾으로 규정하고, 또는 ‘變禮를 절충하는 방법에 대

13) 盧仁淑, 「한강 정구의 예학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연구』 12, pp.163-182, 1999. 12, 한국유교학회.

14) 高英津, 「17세기 초 예학의 새로운 흐름-한백겸과 정구의 예설을 중심으로」(『한국학보』 68, pp102-139, 1992.) 및 「16세기-17세기 예학의 지역적 분화과정과 그 특징」(『국학연구』 13, pp.17-57, 2008.12, 한국국학진흥원).

하여 강구하였다'고 하거나, '王朝禮까지도 士禮의 체계로 분류하여 체계 화함으로써 古禮의 本意를 살리면서도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식 으로 기획되었다'¹⁵⁾는 등의 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 은 대체로 『오선생예설분류』에 수록된 송대 예학자들의 예설과 한강이 이들 예설을 모아 편찬한 의도를 혼동함으로써, 이 책의 편집 의도와 성격 및 그 편차와 내용의 특징을 제대로 지적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선생예설분류』는 송대 성리학자들의 예설을 모아 분류한 禮學 理論 서적이다. 일부 논자 가운데는 이 책은 『儀禮經傳通解』처럼 『儀禮』를 근간으로 하여 三禮 경전의 내용을 家·鄉·學·邦國·王朝禮의 체계로 편집한 것이라 간주하는 이도 있지만, 이 책은 본디 『朱子家禮』처럼 사대부 서인의 관혼상제의 의식 절차를 갖추어 行禮의 준칙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편성된 책도 아니며, 기존의 禮學 經傳이나 『주자가례』 등과 같은 禮書를 이해를 돕기 위한 註釋書도 아니며, 예학의 특정 주제에 대한 自家의 견해를 立論하기 위한 저술도 아니다. 이 점은 「五先生禮說分類序」 뒤에 붙인 한강의 다음 글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오선생예설』의 분류 편집이 끝나자, 이를 보고 묻는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오선생예설』이라 하였으나 『주자가례』는 오히려 편집 내용에 들어있지 않으니, 무슨 설이 있는가? 여러 선생의 說은 대개 한 때 일에 따라 문답한 것이 많아서 당초에 行禮 절차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이 있어서 가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중복되고 산만한데다가 혹 누락되어 소략하고 빠진 것이 있다. 만약 門類에 따라 家禮 내용을 편입해 넣으면 節目이 모두 갖추어지고 순서에도 빠진 곳이 없으며, 또한 이에 의거하여 실행할 수도 있으니, 어찌

15) 박종천, 「한강 정구의 예론과 예설」, 『태동고전연구』 제29집.

禮學家的 온전한 책이 되지 않겠는가?” 나는 말하였다. “그 말이 그렇기는 하다. 나 또한 당초에 그런 뜻이 있어서 일찍이 冠·昏禮 등에 넣어본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생각하니, 이 책을 만든 것은 실로 옛사람보다 나은 점을 구해서가 아니라, 단지 여러 책에 실려 있는 말들을 창졸간에 考閱하기가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초록하여 모아 열람하기에 편도록 한 것이다. 『주자가례』 책이야 이미 지금 세상에 널리 통행하고 있어서 없는 집이 없고 강론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다시 취하여 편집하여 넣는다면 어찌 중복되고 번거로우며 외람스럽지 않겠는가? 하물며 『家禮』는 이미 한 부의 완성된 책이고, 이 책은 고증하여 羽翼으로 삼기 위한 것일 따름이니, 더욱이 『가례』를 파손하여 이 책을 보완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¹⁶⁾

한강이 이미 『오선생예설분류』의 서문을 짓고 그 뒤에 이 글을 다시 덧붙인 것은, 『오선생예설분류』의 편집 의도에 대한 世間の 오해를 우려해서일 터이다. 한강은 여기서 『주자가례』와 같이 行禮節次를 위해 만든 책이 아니고, 또한 의식 절차를 구비한 온전한 하나의 예서를 만들자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면서 이 책은 여러 책에 실려 있는 여러 선생들의 말을 考閱하기에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하였다. 여러 선생들의 말을 고열하여야 할 이유에 대하여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 두었다.

16) 鄭述, 『五先生禮說分類 前集』 『五先生禮說分類序』 追記: 五先生禮說 既訖類輯 人有見而問之者曰: “爲五先生禮說焉 而朱子家禮 尙不在編中 寧有說邪? 諸先生之語 率多一時隨事問答 初非爲行禮節次 有爲而施教 故或重複而繁蔓 或闕漏而疏脫 若使家禮隨門類入 則節目咸備 次第靡闕 亦可以據而行之 豈不爲禮家之完書哉?” 余謂言: “固然矣. 余亦初有是意 亦嘗試入於冠昏等禮矣. 既又思之 所以爲此書者 實非有求多於古人. 只緣諸書散載之言 殊不便於倉卒之考閱 故今姑爲抄 集便覽地. 若家禮之書 夫既盛行於當世矣. 家無不有人無不講. 今復取而編入 則豈不爲重複而 煩猥者哉? 況家禮既爲一部成書 此書當不過考證羽翼而已 尤不合破彼而補此.”

天理를 節文하여 人事의 儀則으로 삼되, 분산하면 三百 三千의 질서가 되고, 통합하면 一身과 一心에 근간이 되는 禮는 寸자에 몸에서 잠시라도 떠나서는 안된다. 道德 仁義가 이로써 이루어지고 君臣 父子 兄弟가 이로써 확정되니, 그래서 옛 사람은 가까이는 視聽言動에서부터 멀리는 家鄉邦國에 이르기까지 그 정성과 恭敬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나 常禮는 하나지만 變禮는 만 가지로 달라져 비록 예전의 박식한 인사라도 일에 당면하여 미혹됨을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시비가 서로 헛갈리고 의론의 갈래가 많아서 말다툼으로 혐의가 생겨나고, 온 천하 인재를 동원해도 변론하지 못하고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도 의심을 남겼다. 그 精微한 경지를 찾기 어려워,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 과연 이리함이다. 하늘이 斯文을 보살피사 五星이 다시 밝음에 두 분 程子와 涑水 司馬光선생과 橫渠선생 및 晦庵 朱선생께서 배출되어 번갈아 일어남에 大道가 이로써 천명되고 人文을 선양함에, 禮를 근본으로 하여 일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 손바닥을 가리키듯 하였으니, 크게는 宏章 巨論과 간략하게는 片言隻字라도 어느것이나 한결같이 天則을 따르고 人情에 곡진하여, 精審하고 간절하며 밝고 뚜렷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로써 후학의耳目을 환하게 열어준 것이 어찌 다만 수레의 指南車나 어둠을 밝히는 촛불 정도만 되겠는가? 다만 문집과 語錄 및 여러 경전 集註에 흩어져 편집되어 있어서, 비록 찾아서 살펴보려는 뜻이 있어도 넓은 바다에서 진주를 찾듯이 아득하니, 갑자기 다급한 경우를 당하여 어떻게 두루 살펴보고 뽑아낼 수 있겠는가?¹⁷⁾

17) 鄭述, 『五先生禮說分類 前集』, 『五先生禮說分類序』: 節文乎天理 而儀則乎人事 散之爲三百三千之有秩 統之爲一身一心之所幹 未嘗斯須去乎君子之身 道德仁義以之而成 君臣父子兄弟以之而定. 所以古之人 自視聽言動之近 達之家鄉邦國之遠 無所不用其誠敬焉. 然而常禮惟一 變禮萬殊 雖在昔博識之上 尙未免臨機滋惑 是非相眩 議論多歧 聚訟構嫌 至於學天下而莫辨 積世代而留疑. 其精微難審 眞是之莫睹 果如是哉. 天相斯文 五星重明 有若兩程先生 涑水先生 橫渠先生與夫晦菴朱先生 輩出迭興 大道以闡 宣揭人文 以禮爲本 隨事剖析 如指諸掌. 大而宏章巨論 約而片言單辭 無非一循乎天則 曲盡乎人情 精深懇到 明白昭晰. 其所以開闢乎後學之耳目者 豈但爲車之指南 燭之炳幽乎. 惟是散編於文集語錄等書及諸經傳註 雖有意於尋考 渺然若滄海之求珠 倉卒急遽之際 其何能徧閱而拈出也.

『오선생예설분류』 서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 글을 다시 요약하자면, 道德仁義를 확립하는 禮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는 예로부터 시비의 논란이 많았으나, 宋나라 五先生에 이르러 禮를 근본으로 하여 人文을 밝힌 것이 가장 정밀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그들의 예설은 후학들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 선생이 국가의 典禮에 대하여 논한 ‘宏章巨論’이나, 예의 절도를 언급한 간단하고 세세한 말이라도 모두 天理를 따르고 人情을 십분 감안하는 ‘禮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적용의 실체를 살펴보는 데 소중’함에도, 그 언급들이 각종 서적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考閱하기에 편하도록 모아서 분류 편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정은 이 글의 후반부에 개진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 서문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만약 五先生이 절충한 本意를 깊이 체득하고, 朱子와 黃榦이 저술한 『通解』의 책에서 取正함으로써, 周公과 孔子의 大原에까지 우러러 거슬러 올라간다면, 禮가 義의 實體가 되는 까닭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고, 太一에 근본한다고 한 이유도 말없이 이해할 것이며, 三綱五常의 大體가 이에 확립될 것이다.¹⁸⁾

이처럼 『오선생예설분류서』의 본문에는 『주자가례』와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고, 『의례경전통해』를 거론하면서도 그 체제와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보다는 “五先生이 折衷한 本意를 깊이 체득한다”는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서문 말미에서 이 책의 효용을 요약한 이 말은 그 편집

18) 鄭述, 『五先生禮說分類 前集』 『五先生禮說分類序』: 若能深體五先生折衷之本意 而取正於朱黃通解之書 有以仰沂周孔之大原 則所以爲義之實 可以自得 所以本於太一者 可以默會而三綱五常之大體 其斯立矣.

의도를 적실하고 정확하게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周孔之大原’과 ‘義之實’, ‘太一’ 등의 말은 모두 禮의 本原을 가리키는 말이고, ‘三綱五常의 大體’는 禮를 가리키는 말이니, 이는 예를 연구하는 학문 즉 ‘禮學’의 궁극적 학문 목표이다. 이는 『오선생예설분류』를 편찬한 이유가 관혼상제의 의식 절차를 고증하거나 강구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라기보다, 宋代 성리학을 주도한 다섯 선생이 제기한 ‘禮說의 本意’를 체득함으로써 예의 본원을 이해하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 즉 ‘禮學’의 학문 방법과 목표를 분명하게 하려는 데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강의 『오선생예설분류』의 편찬 의도는, 당대에 평소 한강의 예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旅軒 張顯光이 『오선생예설분류』 간행할 적에 붙인 발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오호라. 禮籍이 없어진 지 오래되어 穿鑿하는 논의가 일어나니, 사람들은 설 만한 자리가 분명치 않았고 세상에서는 본받을 만한 教化가 일어나지 않았다. 평소의 처신에도 오히려 원칙에서 어긋남이 많은데 하물며 변화에 대응함에 있어서 능히 적응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人紀가 서지 않고 禮俗이 보이지 않음이 당연한 것이다. 오선생이 번갈아 나타나 거의 남김없이 강론하여 밝히고 서로 이어 발휘함이 없었다면, 후세 사람들이 어떻게 성인이 禮를 제작한 本義를 궁구할 수 있겠으며, 임시로 변하는 일에 대응하는 자가 어떻게 權道로 절충하는 定論을 알 수가 있었겠는가? 寒岡선생이 늦게 우리 東國에서 나타나 禮學에 마음을 둔 지 수십 년 만에 비로소 학설을 모아 분류하여 책 한 질을 만들고 『오선생예설』이라 제목을 붙였다. 대개 이로부터 天理 節文과 人事의 儀則이 서로 구비되고 서로 보조가 되어 融會貫通하여 헛갈리는 것이 밝아지고 의심스러운 것이 확정되고 다툼이 종식되었다. 斯文에 공이 됨을 어찌 예사 일이라고 하겠는가!¹⁹⁾

19) 張顯光, 『旅軒先生文集』 卷10, 『五先生禮說跋』: 嗚呼. 禮籍之亡久矣 穿鑿之論作矣. 人

이웃 고을에 살며 한강의 학문 전말을 익히 잘 알았던 旅軒 역시, 오선생의 예설이 예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權道 절충의 변동 원칙에 대한 定論을 보여준다는 점에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설을 모아 분류한 이 책이 학자들의 예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오선생예설분류』를 간행한 한강의 문도 石潭 李潤雨 역시 그 발문에 이르기를 “오선생의 예설로서 전해지는 기록 가운데 여기저기 나오는 것이면 한 구절 한 마디라도 수록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門類를 구분하여 제목을 지어서 사안에 따라 살필 수 있게 하였다. 뒷날 禮學에 뜻을 두는 자가 이 책을 얻어 살펴본다면 한번 보고는 뚜렷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니, 학자들에게 공이 어찌 크지 아니하겠는가!”²⁰⁾라고 하여, 이 책이 학자들에게 ‘예학’의 지침서가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한강의 『오선생예설분류』는 당초부터 송대 성리학자들의 예학에 대한 논설을 종합 분류하여 송대 성리학자들의 예학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예학 이론 서적이다. 역대 예학 관련 저술 가운데 특정 시대, 특정 學團 또는 學派의 예학 이론을 이렇게 정연한 체계로 구비하여 정리한 문헌은 일찍이 없었다. 그런데 한강은 당초부터 송대 성리학자들의 예

莫的可立之位 世莫與可範之化. 其在處常 尙多違則 況於隨變之應 能得其中乎. 人紀之不立 禮俗之不見 固其宜矣. 不有有宋五先生 迭出而講明之 相繼而發輝之 殆無所遺漏焉 則後之人 何得以究聖人制禮之本義 而臨時應事變者 豈有以知權度折衷之定論哉. 寒岡先生晚出吾東 留心禮學 積有年紀 始遂哀聚類從而爲一帙 日之曰五先生禮說. 蓋自是天理節文人事儀則 互備相翼 融貫會通 而眩者明 疑者定 爭者熄矣. 其有功於斯文 豈可以尋常道哉.

20) 李潤雨, 「五先生禮說分類跋」: 五先生論禮之說 雜出於傳記中者 隻句片言 無不收錄 而分門命題 隨事可考. 後之有志於禮學者 苟得此書以觀之 則一見卽了然矣. 其有功於學者 豈不大哉.

설이 앞 시대의 예학자들과 달리 긴밀한 상호 연관성 속에 독특한 이론 체계를 수립하였다고 보고, 그 논의들을 이와 같이 종합 분류함으로써 그들의 예학 이론 체계를 밝히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는 관혼상제의 의식 절차를 고증하여 그 行禮의 표준을 강구하는데 그치고 있었던 조선조 『가례』 담론의 일반 수준에서 한걸음 불쑥 전진하여, 이론 체계를 구비한 본격적인 학문 담론으로서의 ‘예학’ 저술을 시도한 것으로, 조선조 예학사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일대 사건이었던 것이다.

3. 『오선생예설분류』의 편차와 내용

『오선생예설분류』는 宋代 理學 諸家の 예설을 모아 분류 편집한 책이다. 이 책은 본디부터 宋代 여러 학자들이 제기한 禮說을 考覽하기에 편하도록 분류 편집한 예학이론서이기 때문에, 관혼상제의 의식 진행 절차나 국가 典禮의 세부 진행 절차의 안정된 체계를 규모 있게 정리한 行禮 規範書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편집 구성상의 기본 원칙으로, 宋代 五先生의 禮說에 해당하는 조목은 첫 글자를 上欄에 연접하여 시작하되, 연결되는 다음 행은 한 글자를 띄웠고, 마지막에 小註雙行으로 해당 예설의 出典을 밝혀놓았다. 또한 문답 내용과 관련된 배경을 밝혀야 할 경우에는, 역시 해당 언급의 앞줄에 두 칸 또는 세 칸을 비우고 그 출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이 책은 『程氏遺書』와 『程氏外書』, 『伊川文集』, 張橫渠의 『理窟』, 『朱子大全』, 『朱子語類』, 『晦庵語錄』, 『性理大全』, 『文獻通考』, 『儀禮經傳通解』 등

48종의 서적에서 程顥, 程頤, 司馬光, 張載, 朱熹 등 다섯 학자의 예설을 취합 분류하여 편성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

이 책은 그 명칭을 비록 『오선생예설분류』라 하여 二程 이하 宋代 학자 5인의 예설을 모았다고 하였으나, 그 외에도 예설이 인용된 인물이 적지 않다. 오선생의 설이 아니면서 해당 항목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예설은 첫 글자를 한 칸 띄운 다음 '附'란 글자를 붙인 다음 인용하고 그 마지막에 출전을 小註雙行으로 밝혔다. 附로 덧붙여 인용된 인물로는 朱子의 經傳註釋에 간접 인용된 인물 외에도 唐나라의 韓愈와 宋나라의 邵雍, 張栻, 劉璋, 呂祖謙, 陳淳, 陳埴, 黃幹 등의 글을 직접 인용한 것이 보이고, 그 외에 『顏氏家訓』, 『朱元陽祭錄』, 『伊洛淵源錄』, 『家禮儀節』과 『家禮會通』 등에서 취한 것도 보이며, 「韓魏公祭式」은 전문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이 책은 前集과 後集으로 나뉘어 있다. 전집에는 서두에 禮總論을 두고 다음으로 天子諸侯冠禮, 天子諸侯婚禮, 天子諸侯喪禮, 天子諸侯祭禮, 天子諸侯雜禮의 다섯 문류를 두었고, 후집에는 士大夫의 예제에 관한 논의를 冠禮, 婚禮, 喪禮, 祭禮, 雜禮 등 다섯 문류로 구분하여, 거기에 編禮 한 편을 추가하였다. 분류된 항목은 각기 서두에는 그 예설과 관련된 예학상의 근거를 기존의 삼례 경전이나 기타 문헌을 인용하여 밝혔다. 예의 근거를 밝히는 데 인용된 문헌은 『禮記』, 『儀禮』, 『周禮』 등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詩·書·易과 『論語』는 물론 『孔子家語』, 『白虎通義』, 『容經』 등의 諸子書와, 또는 『史記』, 『漢書』, 『宋史』 등의 역사 기록과 『通典』, 『事文類聚』, 『事物紀原』 등의 책에서 근거를 취하기도 하였다.

『오선생예설분류』의 편차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전후집 分門의 공통 기준으로 적용한 관혼상제 및 雜禮 예설의 분류 근거, 전집과 후집

의 분리 이유, 禮總論과 編禮 分門의 의의 등 세 가지이다. 편차만으로 본다면 『오선생예설분류』는 중국과 조선에서 이미 나온 기왕의 禮書에서 전례를 보기 어려운 새로운 체계를 갖추었다. 唐나라의 開元禮 이래 역대 왕조에서 편찬한 국가의 典禮는 대개 吉·凶·嘉·賓·軍 五禮의 순서로 편찬되어 있고, 이는 조선왕조의 典禮를 확정한 『國朝五禮儀』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오선생예설분류』는 이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北宋 때 사대부 집안의 관혼상제의 예를 정리한 司馬光의 『書儀』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南宋 이래 사대부 집안 예식의 한 모범을 제안하였던 『朱子家禮』는, 『通禮』를 필두로 冠·昏·喪·祭의 四禮를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그런데 『오선생예설분류』는 前集과 後集 모두 관·혼·상·제의 4禮에 雜禮를 더하여 다섯 부문으로 나누고, 그 아래 필요한 細目을 세워서 제가의 예설을 분류하면서, 『가례』의 사례를 따르지 않았다.

이 책에서 天子諸侯禮와 사대부 서인의 예에 관한 학설을 전집과 후집으로 구분하면서도, 전후집 동일하게 모두 冠禮·昏禮·喪禮·祭禮와 雜禮의 다섯 부문으로 분류하여 편성한 것은, 또한 朱子가 편찬한 『儀禮經傳通解』에 家·鄉·學·邦國·王朝禮의 구분을 둔 것보다 다른 것이다.

『의례경전통해』에 家禮·鄉禮·學禮·邦國禮·王朝禮의 순서로 篇目을 정해둔 것은, 그 본디 의도가 예학 관련 문헌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통합하려는 데 있었기 때문에, 역대 왕조의 典禮에서 吉禮·嘉禮·賓禮·軍禮·凶禮의 五禮로 분류한 사례와는 다른 새로운 體例를 채택하였다. 그러므로 그 내용의 편성에 있어서도 三禮 경전에 나오는 관련 기록을 포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家禮篇으로만 말하더라도 『의례경전통해』에는 ‘士冠禮’, ‘冠義’, ‘士昏禮’, ‘昏義’, ‘內則’ 등은 모두 삼례 경전의 관련 글을 읊

겨 편찬한 것이고, ‘內治’, ‘五宗’, ‘親屬’ 등은 삼례 경전 등의 문헌에 흠어져 있는 내용들을 별도의 제목을 세워 모아 놓은 것이며, 喪禮와 祭禮 등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黃榦이 편찬한 『儀禮經傳通解續』에 喪禮와 祭禮의 문헌을 모아두었는데, 여기에는 또한 주자가 家禮와 邦國禮, 王朝禮를 구분하여 서술하였던 것과는 달리, 天子·諸侯와 公卿·大夫와 士禮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 놓았다.

더구나 『오선생예설분류』는 그 내용이 송나라 성리학자들의 예학 이론을 검토하기 위해서 관련 예설을 모아 분류한 책이기 때문에, 관련 문헌을 모두 포괄한다거나, 해당 의식의 절차를 빠짐없이 순서대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오선생예설분류』의 편차는 『의례경전통해』의 편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오선생예설분류』에서는 諸家の 학설을 왜 冠禮, 昏禮, 喪禮, 祭禮 및 雜禮의 다섯 篇目으로 분류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한강의 저술에 명확하게 밝힌 바가 없다. 그런데 『오선생예설분류』 후집에 인용되어 있는 朱子の 다음 두 언급은 이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禮經은 모름지기 門類로 편성되어야 한다. 冠·昏·喪·祭 및 다른 잡다하고 자잘한 禮數까지 모두 門類로 나누어 편집하여 그 異同을 상고하고 그 當否를 訂定해야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정력이 이미 미치지 못하게 되었으니, 짐짓 후인들에게 남겨 둔다.”²¹⁾

21) 『五先生禮說分類 後集』 권8 「編禮」: “禮經要須編成門類. 如冠昏喪祭及他雜碎禮數 皆須分門類編出 考其異同 而訂其當否 方見得. 然今精力已不逮矣 姑存與後人.” 이는 『朱子語類』 권82에 실려 있는 말이다.

趙幾道가 또 물었다. “禮는 어떻게 다듬어야 합니까?” 대답하였다. “禮는 온전한 책[全書]이 아니고, 『禮記』는 더욱 잡박하다. 이제 『儀禮』를 바른 것으로 취한 뒤에, 『禮記』와 다른 여러 서적의 설을 취하여 部類에 따라 붙이고, 다시 諸儒들이 분석하여 공박한 설들을 다시 취하여 각기 그 아래에 덧붙여서, 찾아보기에 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²²⁾

이 두 단락은 “선생께서는 二禮와 『尙書』·『春秋』에 대하여 확정된 설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주자가 답변한 내용이다. 주자는 『尙書』와 『春秋』에 대한 제가의 학설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하면서, 禮는 본디 三禮 經傳을 하나로 묶어 科試의 과목으로 부과하였으나, 北宋 때 王安石이 『儀禮』를 폐하고 『周禮』와 『禮記』만 취하였기 때문에 二禮라 하지만, 三禮 중에서 『儀禮』를 근간으로 하여 거기에 『禮記』 등의 설을 취하여 부류에 따라 붙여야 예의 본령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주자는 예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冠·昏·喪·祭, 及他雜碎禮數’라고 하여 하나의 대안을 제기하면서, 자신은 이 일에 착수할 정력이 없으니 후학에게 맡겨둔다고 하였다. 주자가 제안한 禮 분류의 기준은, 『오선생예설분류』의 다섯 항목과 거의 일치한다. 한강의 분명한 언급이 없어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오선생예설분류』에서 전집과 후집 모두 관혼상제와 잡례의 다섯 가지로 분류한 것은 아마도 여기에서 유래하는 듯하다.

한강은 앞서 이 책이 본디 考據의 편의를 위해 편찬된 것이어서, 하나의 독립된 저술로 完整的 체계를 갖추어 세상에 이미 통행되고 있었던

22) 『五先生禮說分類 後集』 권8 「編禮」: 幾道又問, “禮合如何修?” 曰, “禮非全書 而禮記尤雜. 今合取儀禮為正. 然後取禮記諸書之說 以類相從, 更取諸儒剖擊之說 各附其下, 庶便搜閱.” 이는 『朱子語類』 권83에 실려 있는 말이다.

『朱子家禮』의 내용을 이 책에 끌어넣어 중복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오선생예설』의 편차나 내용은 家·鄉·學·邦國·王朝禮의 편차를 적용한 『의례경전통해』와도 명백하게 구별된다. 그럼에도 前集의 天子 諸侯禮에 대한 예설을 冠·昏·喪·祭와 雜禮의 다섯 門類로 나누어 편성하고, 後集의 편차에도 동일한 문류를 적용한 것이, 또한 朱子の 예서 편찬의 의도를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編禮 편의 서두에 붙인 한강의 다음 언급 때문이다.

가만히 先生이 編禮를 논한 조목들은 반드시 禮를 상고하는데 절실한 것은 아니지만, 선생이 禮書를 修正하면서 평생 부지런히 힘을 쓴 것이 이와 같았음을 보이고자 함이다. 그래서 책 끝에 붙이지만, 또한 미처 다 수습하지 못하고 누락된 것이 있을 것이다. 禮書는 뒤에 『儀禮經傳通解』로 고쳤고, 勉哉 黃先生과 信齋 楊先生에게서 脫稿되었다고 한다.²³⁾

『오선생예설분류』의 編禮篇은 첫머리에 인용된 「乞修二禮筭子」를 제외하면 주자가 『의례경전통해』를 저술할 적에 문도들과 주고받은 서신의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乞修二禮筭子」도 또한 『儀禮』를 經으로 하고 『禮記』 및 여러 경전과 다른 서적에서 예를 언급한 내용을 本經 아래에 덧붙이고, 그 아래에 注疏와 諸儒의 설을 덧붙여, 온전히 구비된 한 부의 예서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니, 이는 또한 『의례경전통해』와 무관하지 않다. 『의례』를 근간으로 완성된 한 부의 예서를 만들려고 한 주자 만년의 노력은 『오선생예설분류』의 편찬에 연연하였던

23) 『五先生禮說分類 後集』 권8 「編禮」: 竊按先生所論編禮 未必皆切於考禮 而欲見先生修正禮書 平生用力之勤 至於如是. 用纂篇末. 亦有未盡收拾而見漏者焉. 禮書後改以儀禮經傳通解 而脫稿於勉哉黃先生榦信齋楊先生復云.

한강의 입장과 매우 흡사하였던 것이다.

『오선생예설분류』의 편차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각 門類와 小題目 아래에 붙여 놓은 篇題이다. 한강은 오선생의 예설을 분류하여 제목을 붙이면서 각 제목 아래에 해당 예설과 관련된 문헌의 근거를 간략하게 인용하여 두었는데, 이 篇題는 해당 항목에 인용된 禮說의 立論 근거를 밝힌 것으로, 오선생의 예학 논의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이 책에서 편제가 중요한 이유는 石潭 李潤雨의 다음 언급에서 찾을 수 있다.

한스런 것은 선생께서 각 門類의 小題目 아래에 雜取 傳記 가운데의 문자를 섞어 취하여 篇題로 삼았는데, 간혹 거기에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하면 그냥 그 아래 두세 줄을 비워 두었다가, 찾아내는 대로 보완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불행히도 선생께서는 손을 떼지 못한 채 별세하시어, 미처 채워 넣지 못한 곳이 아직 많다. 실로 우리들의 무궁한 한이지만 이제 감히 그 빈 줄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선생의 남긴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이고, 또한 뒷날의 군자가 혹 선생의 뜻을 따라 이어주기를 기다리기 위함이다.²⁴⁾

석담의 언급대로라면 이 책을 편집할 적에 小題目과 篇題는 한결같이 한강이 십분 유의하여 달았고, 한강이 篇題를 작성해 놓지 않은 곳에, 그 문도들이 감히 변경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이 篇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다. 석담은 편제를 달지 않고 비워둔 채 채워넣지 못한 곳이

24) 李潤雨, 『石潭先生文集』 卷3 『五先生禮說跋』: 所可恨者 先生於各門小題目之下 雜取傳記中文字 以爲篇題, 而間或不得其語 則輒空其下數三行 以爲隨得隨補之計, 而不幸先生未斷手而下世 其未及填補者尙多, 實爲吾儕無窮之恨 而今亦不敢輒去其行者, 所以表著先生之遺意 而亦以待夫後之君子 或有追先生之志而繼之焉耳.

많다고 하였으나, 현재 전하는 『오선생예설분류』의 印本에 小題目 아래 편제를 붙이지 않은 채 공란을 둔 곳은 後集 권5의 ‘行狀’과 권11의 ‘處家’ 두 곳 뿐이다. 또한 소제목 아래 篇題도 없고 공란도 없는 곳은 前集에는 보이지 않고, 後集에 ‘立外家後’, ‘祭外家’, ‘封贈’, ‘外屬’, ‘課試’, ‘雜儀’ 등 6곳이 있다. 그 중에서 ‘處家’와 ‘雜儀’ 등의 예설 항목은 굳이 편제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立外家後’, ‘祭外家’, ‘封贈’, ‘外屬’, ‘課試’ 등과 관련된 예설은 宋나라 당대의 俗禮와 관련된 것이다.

『오선생예설분류』의 小題目 篇題에는 대체로 삼례 경전에서 관련 근거를 찾아 그 立論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가령 후집 喪禮의 ‘預凶事’는 『左傳』에 근거를 둔 것이고, ‘明衣’나 ‘寢衣’와 같은 것은 『論語』에 근거를 두었으며, ‘火葬’은 『列子』에서 근거를 찾아 놓았다. 또한 漢나라 이래 역사 문헌에서 근거를 낸 것으로는, 전집 喪禮 편의 ‘行三年’, ‘有詔短喪’, ‘以日易月’, ‘繼統執喪’, ‘受外國詔’, ‘論漢王稱親’과 제례편의 ‘山陵’, ‘城隍’, ‘同堂異室’, ‘三后并配’, ‘追廢先后’, ‘還服廢后’, ‘尊號’, ‘聖節’과, 후집 상례편의 ‘不用浮圖’, ‘刺史弔吏民喪’, ‘廬墓’, ‘招魂葬’, ‘地風’, ‘門人私諡’와, 제례편의 ‘影堂’, ‘紙錢’, ‘晨謁’, ‘節祀’, ‘焚黃’, ‘短喪’, ‘異姓爲後’, ‘生日’ 및 잡례편의 ‘鄉約’, ‘跪坐’, ‘乘輜’ 등이 있다. 이는 대체로 역대 왕조의 典禮나 俗禮 또는 송나라 당대의 새로운 관습에서 파생된 사안들로써, 이를 통하여 송나라 성리학자들의 예설 담론의 편폭이, 가정 의식은 물론 역대 풍속과 천하 국가의 經世 方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들 篇題는 송대 성리학자들의 예설의 입론 근거와 그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철저한 검증과 다각도의 고려를 거쳐 작

성된 것임을 알 수 있거니와, 한편으로 이를 통하여 송대 성리학자들의 예학 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와 그들의 관심사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 예학의 이론에 밝고, 고금의 문헌에 박식한 한강이 아니고서는 선불리 편제를 작성할 수 없는 점이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편자가 문헌에 나오는 송대 학자들의 예설을 모아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분류된 항목의 비중과 자료의 분량 사이에 심한 불균형이 나타난다. 前集의 天子諸侯禮에 있어서 권7의 태반이 주자의 祧廟 논의로 채워진 것이나, 권8의 태반이 儀禮釋宮 한 항목으로 채워진 것은 이런 사정을 보여준다. 이는 宋代 제가의 문헌에서 수집된 예설의 내용과 분량이 그러하였기에 불가피한 것이다.

『오선생예설분류』의 편목 가운데는 또한 주자의 『가례』에 독특하게 채용되었던 항목들도 나타난다. 예컨대 『가례』에서 특별히 중시하였던 通禮의 祠堂章과 宗法을 祭禮에 편입하고, 深衣制度는 雜禮로 실어두었다. 『주자가례』에 보이지 않는 조목들도 많이 설정하여 놓았다. 예컨대 喪禮의 預凶事, 卜兆, 芻靈, 合葬, 廬墓, 旅葬, 火葬, 招魂葬, 改葬, 短喪, 野喪服 등과 祭禮의 世數位次, 七十老而傳, 紙錢, 生日, 親屬, 鄉飲酒, 鄉約, 鄉射, 雜禮의 堂室, 跪坐, 步趨 등은 前代의 『家禮』에서는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항목 중에 일부는 이후의 조선후기의 家禮書에서 간혹 정식의 편차로 채택하기도 하였으니, 이 책에서 취한 예설 분류의 소제목들은 결과적으로 『家禮』에 채택되지 아니한 諸家의 예설까지 두루 포괄하여 보완하는 효과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III. 『五先生禮說分類』의 예학사적 의의

한강선생의 『오선생예설분류』는 한국예학사에 있어서 한 전기를 마련한 책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송대 성리학자들의 예설을 분류 정리하여 그 예설의 근거를 검토함으로써 성리학자들의 예학 관점과 禮說 取舍의 특성과 理論의 重點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으로 이 책은 퇴계 이후 『주자가례』의 연구 실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조선중기 예학자들에게, 주자 예학의 내력과 본질을 파악하고 주자가 『가례』를 편찬한 본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가례』에는 명시되지 않은 주자의 예설과 『가례』의 내용을 간편하게 비교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자의 평소 또는 晩年 定論에 의거하여 『가례』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선생예설분류』에서 주목할 것은 前集의 禮總論과 각 分門마다 붙여 놓은 總論이다. 『오선생예설분류』 전집 서두의 禮總論에는 二程(15)과 張橫渠(6) 및 朱子(77)의 예설 가운데 예학 원칙과 관련된 담론 88조목을 채록하여 실어 놓았다. 여기에는 송대 성리학자들의 예학에 대한 기본 입장과 태도 및 그 이론의 근거가 나타나 있다. 禮總論의 篇題에는 이들 88조목과 관련하여 『禮記』에서 7조를 인용하여 놓았는데, 이는 한강이 宋代 성리학자들의 禮學 立論의 중요한 이론 근거로 간주한 것들이다. 한강이 송대 성리학자들의 예학 담론에서 그 이론의 핵심 근거라고 생각하여 禮總論의 篇題로 올린 7조는 다음과 같다.

- ① 禮從宜 使從俗. <曲禮>
 ② 夫禮者 所以定親疎 決嫌疑 別同異 明是非也. <曲禮>
 ③ 道德仁義 非禮不成 教訓正俗 非禮不備 分爭辯訟 非禮不決 君臣上下父子兄弟 非禮不定 宦學事師 非禮不親 班朝治軍 涖官行灑 非禮威嚴不行 禱祠祭祀 供給鬼神 非禮不誠不莊. 是以 君子恭敬撝節退讓以明禮.<曲禮>
 ④ 人有禮則安 無禮則危. 故曰禮者不可不學也. <曲禮>
 ⑤ 君子行禮 不求變俗 祭祀之禮 居喪之服 哭泣之位 皆如其國之故 謹脩其法而審行之. <曲禮>
 ⑥ 禮也者 義之實也. 協諸義而協 則禮雖先王未之有 可以義起也. <禮運>
 ⑦ 先王之立禮也 有本有文. 忠信禮之本也 義理禮之文也. 無本不立 無文不行. <禮器>²⁵⁾

예총론의 篇題에 거론한 『禮記』의 각 조목은 한강이 채록하여 편입한 것으로, 예학총론에 채록한 송대 이학자들이 발언 내용과 연관되는 삼례 경전의 근거를 검증함으로써, 송대 이학자들의 예학 입론의 기본 입장과 그 이론의 중점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①은 禮從宜의 원칙, ②③④는 예의 기능과 효용 및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며, ⑤는 不求變俗의 원칙이고, ⑥은 義起之禮의 경전적 근거이며, ⑦은 예의 본질과 그 구현 방식으로서의 義理의 상호 의존 관계에 대한 기본 논리이다.

한강이 예총론의 서두에 제시한 『禮記』의 7개 단락은 결국 朱子로 귀결되는 송대 성리학자들의 예학 이론의 핵심 근거이다. 이를 요약하자면 從宜從俗의 논리와 예의 효용 및 義理, 義起之禮 등이 송대 성리학자들의 예학 담론의 중요 논점이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禮總論』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禮隨時論’이다. 「예설총론」 맨 앞

25) 『五先生禮說分類 前集』 권1 「禮總論」 篇題.

예 程子の ‘禮不泥古’의 설이 채록되어 있다.

예를 집행함에는 전혀 古禮에 빠져서는 안된다. 모름지기 시대의 풍속과 기상이 각자 같지 않기 때문에 조처하는 곳이 본디 옛날과 다르지 않을 수가 없음을 보아야 한다. 마치 지금 사람의 얼굴이 각자 옛 사람과 같지 않은 것처럼, 만약 옛 器物만 사용하면 또한 서로 걸맞지 않게 된다. 비록 성인이 나타나더라도 모름지기 損益함이 있어야 한다.²⁶⁾

程子の ‘禮不泥古’는 예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古今의 시대 변화에 따라 예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禮宜從時’의 變通論이다. 한강은 이와 관련하여 篇題에다 『禮記』 「曲禮」의 ‘從宜從俗’의 구절을 뽑아놓았다.

「예설총론」에 채록된 송대 성리학자들의 예설에는 從時 從俗과 관련된 언급이 무려 32항목에 이른다. 채록된 인물의 연대 순서로 배열하면 程子の ‘禮不泥古’은 그 다음 程伊川의 ‘禮隨時大’로 이어지고, 다시 그 다음에 張橫渠의 ‘時措之宜’²⁷⁾로 발전되었다가, 朱子の ‘禮時爲大’의 논리로 귀결됨을 볼 수 있다. 다음은 程伊川의 ‘禮時爲大’ 설이다.

禮에는 무엇이 중대한가? ‘時’가 중대하다. 또한 모름지기 時를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하면 따르고 다스려야 하면 다스리되, 그 때를 당하여 그 일을

26) 『五先生禮說分類 前集』 권1 「禮總論」: 行禮不可全泥古. 須當視時之風氣自不同 故所處不得不與古異. 如今人面貌 自與古人不同, 若全用古物 亦不相稱. 雖聖人作 須有損益.

27) 『五先生禮說分類 前集』 권1 「禮總論」: 時措之宜 便是禮. 禮即時措時中. 見之事業者 非禮之禮 非義之義 但非時中者 皆是也. 非禮之禮 非義之義 又不可一槩言. --- 禮亦有不須變者 如天叙天秩 如何可變. 禮不必皆出於人 至如無人. 天地之禮 自然而有 何假於人. 天之生物 便有尊卑大小之象 人順之而已 此所以為禮也.

일으키는 것이 곧 능히 때를 따름이다. '隨時'의 의리는 큰 것이다. --- 지금 사람이 각자 옛날 사람과 다름은 그 風氣가 시켜서이니, 장수하여 오래 살아도 형체와 모습이 모두 다르다. 옛날 사람은 모두 백세를 살았는데 지금 어찌 이런 사람이 있는가? 옛날 사람의 형상을 살펴보면 冠冕을 입고 있는데, 지금 사람 가운데 어찌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러므로 簋豆와 簠鬯은 본디 지금 사람에게 시행할 수 없으니, 본디 시대가 걸맞지 않고 시대가 같지 않아서이다.²⁸⁾

程伊川이 '禮時爲大'로 시작하는 정이천의 '禮隨時說'은, 주자의 다음 논의로 계승되어 그의 禮書 저술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되었다.

禮에는 時가 중대하다. 聖賢이 일어나더라도 필시 일체 의심스런 古禮를 따르지는 않고, 단지 古禮를 줄여서 지금 세속의 禮를 따라 조금 防範을 두어 너무 간략한 지경에 이르지만 않게 하고 말 것이다. 孔子께서 先進을 따르겠다고 한 것과, 또 夏의 時를 따르고 殷의 輅를 타겠다고 한 것을 보면, 이는 周나라의 文을 덜어서 옛날의 소박함을 따르는데 뜻을 둔 것이다. 이제 禮書를 편집함에는 단지 옛날의 제도를 대략이나마 남겨두어서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줄여서 행할 수 있는 것을 찾게 하면 그만이다. 만약 반드시 일일이 옛 사람의 의복과 관과 신발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조리 다 갖추려고 한다면, 그 형편이 하려고 해도 안될 것이다.²⁹⁾

이 주자의 從時論은 『의례경전통해』를 편찬하는 과정에 나온 언급이

-
- 28) 『五先生禮說分類 前集』 권1 「禮總論」: 禮孰爲大 時爲大. 亦須隨時 當隨則隨 當治則治. 當其時 作其事 便是能隨時. 隨時之義 大矣哉.
- 29) 『五先生禮說分類 前集』 권1 「禮總論」: 禮時爲大. 使聖賢有作 必不一切從古之禮. 疑只是以古禮減殺 從今世俗之禮 令稍有防範節文 不至太簡而已. 觀孔子欲從先進 又曰行夏之時乘殷之輅 便是有意於損周之文 從古之朴矣. 今所集禮書也 只是畧存古之制度 使後人自去減殺 求其可行者而已. 若必欲一一盡如古人衣服冠履之纖悉畢備 其勢也行不得.

지만, 주자가 『家禮序』에서 “三代에는 禮經이 완비되었으나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건물과 도구와 복장의 제도와 출입 起居의 절도는 모두 이미 세속과 맞지 않다. 군자가 간혹 비록 고금의 변화를 짐작하여 다시 한 시대의 법을 만들기는 하였으나 혹은 상세하고 혹은 소략하여 철충할 바가 없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가례』 편찬의 기본 방침의 하나로 채택하였던 논리이다. 이와 같은 從時論은 『禮說總論』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論據로, 종종 다음과 같은 從俗論과 결합되어 개진되었다.

禮의 근본은 민중의 情에서 나오나니, 聖人は 그대로 인도할 따름이다. 예의 도구는 민간의 풍속에서 나오는데, 성인은 그대로 節文할 따름이다. 성인이 다시 나타나더라도 반드시 지금의 의복과 도구를 사용하여 節文할 것이다.³⁰⁾

그런데 禮從時論이나 禮從俗論은 본디 삼례 경전에 명확한 근거를 가진 이론이라고 할 수 없다. 한강은 송대 이학자들의 從時論에 대한 근거와 관련하여 『禮記』 「曲禮」의 ‘禮從宜 使從俗’이라 한 구절을 인용해 두었지만, 從宜 從俗은 엄밀하게 말하여 從時的 이론은 아니다. 「곡례」의 ‘從宜’ ‘從俗’은 예의 事宜에 대한 합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程子가 제기한 ‘禮不泥古’의 ‘從時論’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일찍이 『오선생예설』을 검토한 중국의 彭林 교수는, “宋儒들이 ‘禮時爲大’의 설을 떠벌린 것은 새로운 학설을 창립하여 漢儒의 成說을 고수하는 것을 반대하려는 데 의도가 있었는데, 한강이 이 설을 돌출시킨 것은 또한 깊은 뜻이 있다”³¹⁾고 하

30) 『五先生禮說分類 前集』 권1 「禮總論」.

31) 彭林, 『寒岡鄭述五先生禮說初探』, 『남명학연구』 제11집, 남명학연구소 2001.

었는데, 從時 從俗의 논리는 실로 程伊川과 張橫渠의 설을 거쳐 朱子에 의하여 확립된 송대 성리학자들의 독특한 예설인 것이다.

『오선생예설분류』의 禮總論에서 또 하나 주목할 이론은 ‘義起’論이다. 예총론에는 張橫渠의 다음 발언이 수록되어 있다.

人情에 편안한 것이 곧 禮이다. 그러므로 예는 義理로 말미암아 일으키는 것이다.³²⁾

주자는 횡거의 설을 이어받아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儀禮는 옛 사람이 곧장 이와 같이 한 책을 만들어두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단지 義理로 일으켰다가, 점차 서로 이어받아 잘 시행되면서 情文이 극히 세밀하고 주도면밀하게 된 것인데, 성인께서 이런 생각이 좋은 것을 보고 기록하여 책으로 만든 것이다.³³⁾

義起論은 본디 『예기』 「禮運」의 다음 구절에 근거하는 예학 이론으로, 한강은 이를 禮總論에 인용하여 놓았다.

그러므로 禮란 義의 실체이다. 義에 맞추어 어울린다면 예가 비록 先王의 시대에 없었더라도 의리로 일으킬 수 있다.³⁴⁾

32) 『五先生禮說分類 前集』 권1 「禮總論」: 人情所安即禮也 故禮所以由義起.

33) 『五先生禮說分類 前集』 권1 「禮總論」: 儀禮不是古人預作一書如此 初問只以義起 漸漸相襲 行得好 只管巧至於情文極細密極周經處 聖人見此意思好 故錄成書.

34) 『五先生禮說分類 前集』 권1 「禮總論」: 故禮也者 義之實也 協諸義而協 則禮雖先王未之有 可以義起也. 義者藝之分 仁之節也. 協於藝 講於仁 得之者強. 仁者義之本也 順之體也得之者尊. <『禮記』 「禮運」>.

이와 같은 義起說은 程子の 四代奉祀論과 始祖祭, 先祖祭, 禰祭와 神主作法, 朱子の 祠堂에 이르기까지, 송대 성리학자들이 독특하게 만든 禮說에 널리 적용한 논리로서, 『朱子家禮』의 편성에도 두루 적용되었다.

隨時論과 義起論의 사례로 보아 알 수 있듯이, 『오선생예설분류』는 송대 성리학자들의 예설을 모아 분류하고, 그 예학 이론의 근거를 찾아 명시하여, 송대 성리학자들의 예학 이론의 원천과 그 계승 적용의 사례를 살필 수 있게 함으로써, 송대 성리학자들의 예학 이론의 특성을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조선조 예학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오선생예설분류』의 編次에서 특별한 점의 하나는 마지막에 編禮 편을 별도로 덧붙인 점이다. 한강에 여기에 朱子가 禮書를 편찬하면서 예서의 編次와 편찬의 의도 등과 관련하여 주변 사람과 주고받은 서찰과 문답 기록을 한 편으로 모아 놓았다. 이런 종류의 담론은 정해진 의식 절차의 行禮 實用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四禮나 雜禮 속에 편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한강이 굳이 이런 자료를 수집하여 별도의 한 장을 독립하여 편성하였다. 여기에서 예서 편찬의 規例에 있어서도 주자의 모범을 탐색하려 하였던 한강의 진지한 예학 연구 태도를 알 수 있다.

『오선생예설분류』는 崇禎 2년 기사(1629) 6월 담양에서 간행된 이후³⁵⁾ 당대는 물론 후세 학자들 사이에 예학을 학습하는 매우 중요한 책으로 간주되었다. 『오선생예설』의 편찬에 참여하였던 石潭 李潤雨, 訶齋

35) 李潤雨, 『石潭先生文集』 卷3 「五服沿革圖跋」.

崔暉(1563-1640) 등과 같은 한강 문도 뿐만 아니라 謙齋 河弘度(1593-1666)³⁶⁾, 尤庵 宋時烈(1607-1689)³⁷⁾은 물론, 17세기 중반 이후 활발하게 禮說을 펼쳤던 南溪 朴世采(1631-1695), 龜川 李世弼(1642-1719), 東岡 趙相禹(1640-1718), 厚齋 金翰, 直庵 申暉 등의 문집에 모두 『오선생예설』을 인용하여 예설을 개진한 내용이 들어있고, 또 조선후기에 편찬된 예서의 인용서목에 하나같이 예학의 긴요한 필독서로 열거되었다.

朴世采가 정사년(1677)에 작성한 讀書目錄인 「經傳要目」에는, 易·詩·書·禮·樂·春秋 등 6經과 『大學』 『論語』 『孟子』 『中庸』 『小學』 『近思錄』 등 6서를 비롯하여 그 관련서적 67종을 열거하였는데, 그 중에 조선인의 저술로는 퇴계의 『朱子書節要』와 『宋季元明理學通錄』, 율곡의 『小學集註』와 『星學輯要』, 그리고 한강의 『오선생예설』 등 5종의 서적을 수록하였다.³⁸⁾ 于海 洪萬宗(1643-1725)이 젊어서 그 부친 靜虛堂 洪柱世로부터 받은 독서목록인 「入學門庭」에도 三經과 四書を 비롯한 51종의 서적이 열거되어 있는데, 조선인의 책으로는 『五先生禮說』을 필두로 『經國大典』, 『五禮儀』, 『樂學軌範』 등 4종을 禮經 아래 열거하였다.³⁹⁾ 또한 19세기 초 近畿지방의 학자 下廬 黃德吉은 예학을 배우는 순서를 다음 같이 권고하였다.

36) 河弘度, 『謙齋先生文集』 卷10 「記夢」: 惟文穆公深於禮學 既抄禮記喪禮於四十七篇中 自初終至終制爲五卷 井井不亂 使有目者皆可見. 又述五先生禮說. 其家又有儀禮經傳通解四十卷云云.

37) 宋時烈, 『宋子大全』 卷69 「答金正平」: 五先生禮說 未見其文, 豈因朱子答潘子善不可用凶服 亦皆吉服等語, 而轉成受賀之說耶? 抑聞者誤傳耶? 須考禮說前集第二編 如何如何.

38) 朴世采 『南溪集』 卷53 「經傳要目」.

39) 洪柱世 『靜虛堂集附錄』 「入學門庭」.

예를 배우는 자는 선후를 몰라서는 안된다. 그 학문의 순서를 말하자면, 먼저 『家禮』를 읽어 그 규모를 정하고 다음으로 『儀禮』와 『周禮』를 읽어 그 근원을 상고하고 다음으로 『禮記』를 읽어 그 의리에 통하고, 다음으로 『通解』를 읽어 그 지식을 극도로 넓히고, 『五先生禮說』을 참조하여 그 변론을 살피며, 杜氏의 『通典』을 참조하여 그 事變을 궁구하고, 이에 널리 제가의 예설에까지 미쳐, 이로써 절충하여 적절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그 책을 읽을 때는 숙독하여 강구하되 항상 나의 심성을 바르게 함양한다면, 그 운용이 비록 천 가닥 만 줄기라도 단지 하나의 이치로 관통된다.⁴⁰⁾

이처럼 『오선생예설분류』는 조선후기 학자들에게 『가례』와 삼례 경전 외에 주자의 『의례경전통해』와 함께 조선후기 학자들에게 예학을 연구의 필독서로 중시되었던 것이다.

『오선생예설분류』는 조선시대의 학자가 편찬 간행한 최초의 전문 예학 저술이다. 사대부 관혼상제의 행례 규범을 담은 『주자가례』는 조선초기에 국가에서 간행하여 보급한 이래 여러차례 간행되었고, 사대부 학자가 사사로이 편찬한 예서로 晦齋 李彦迪의 『奉先雜儀』나 栗谷 李珥의 『祭儀抄』 등이 조선 전기에 이미 板刻되었고, 沙溪 金長生이 수정 보완한 『喪禮備要』의 초간본이 1620년에 간행되었다고 하지만, 이런 서적들은 모두 본격적인 예학 연구 서적이라기보다는 관혼상제의 모범적인 의식 절차를 강구한 행례규범서였다. 『오선생예설분류』는 예학에 관한 학자들의 학설을 모아 편찬한 본격적인 전문 예학 저술로서, 이후 편찬 간행된 예설류

40) 黃德吉, 『下廬先生文集』卷3, 『答李紀瑞 壬午』(1822): 學禮者不可不知所先後也. 若言其學之序 則先讀家禮 以定其矩, 次讀儀禮周禮 以溯其源, 次讀禮記 以通其義, 次讀通解 以極其博, 參之五先生禮說 以觀其辨論, 參之杜氏通典 以究其事變, 旁及乎諸家禮說 以之折衷而從宜. 方其讀時 熟復講究 必先求禮之意 常常持養吾心性 則其用雖千條萬緒 只是這箇理而一以貫之. 是可謂約禮 然後庶免夫末稍役文之弊也.

에서 편찬의 한 규례가 되었다.

禮說類 禮書로 임란 이전에 퇴계선생의 예설을 수합한 것으로 추정되는 『退溪先生喪祭禮答問』이란 책이 있어 학자들 사이에 필사본으로 전해졌는데, 거기에는 퇴계에게 질문한 문도들의 이름 순서로 해당 서신의 내용을 초록하여 나열하였을 뿐이었으나, 『오선생예설분류』에서는 전체 내용을 다섯 개의 큰 분류로 나누고, 그 아래 다시 소재목을 붙여 해당 내용을 분류하여 넣는 한편 해당 예설과 관련된 문헌 근거를 찾아 덧붙임으로써, 예설의 본디 출처와 내력을 살펴 연구 고증하고 검색하기에 간편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이후로 예설을 분류하여 편집한 예서에서는 『오선생예설분류』를 체제를 따르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朴世采의 『六禮疑集』에서는 온전히 『오선생예설분류』의 체제를 따라 公朝禮와 私家禮를 전후 집으로 나누어 편찬하였고, 朴胤源(1734-1799)의 『疑禮類輯』 역시 冠·婚·喪·祭·雜禮의 門類를 채택하고 각 분류에 總說과 變禮의 항목을 두었다.

IV. 결어

조선 중기 퇴계 이황을 중심으로 사대부 학자들 사이에 확산된 『주자가례』 연구 열풍으로 인하여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에 이르러 조선의 사대부 관혼상제에는 거의 『주자가례』의 의식 규범을 채택하여 준행하려는 경향이 널리 확산되고 있었다. 이런 시대에 宋代 理學者의 예학 이론을 점검하는 것은, 조선왕조에서 개국 이래 추구하였던 관혼상제의

민간 의식 개량을 통한 예속의 교화를 위해 사대부 관료들에게 권장하였던 『주자가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었다.

『오선생예설분류』는 宋代 道學者들에 의하여 제기된 禮學 이론과 그들에 의하여 강구된 각종의 禮制에 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集成 분류 정리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예학 논의와 연구의 바탕을 마련한 책이다. 이 책은 『朱子家禮』의 주석과 이를 통하여 冠婚喪祭禮의 의식 절차 講究에 매달리고 있었던 조선 중기 예학사에 있어서, 禮書 편찬과 예학 논의의 새로운 典範을 보여줌으로써 예학 논의의 시야를 확대하고 그 정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이 책은 가정의 의식 표준을 제안하는 데 그친 『주자가례』의 정해진 體例와는 달리, 국가의 典禮와 가정의 儀式을 관혼상제와 雜禮라는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분류함으로써, 가정 의식과 국가의 典禮를 통합하는 예학체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 책은 송대 성리학자들의 예설을 분류 정리함으로써 성리학자들의 예학 관점과 예설 취사의 이론 근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례』에 명시되지 않은 주자의 예설과 『가례』의 내용을 비교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자 예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주자가 『가례』를 편찬한 본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자의 평소 또는 만년 정론에 의거하여 『가례』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주자가례』의 관혼상제 규정 해석에 골몰하였던 당시 학자들에게 예학을 통한 修齊治平의 이상 실현이라는 禮學 實用의 시야를 크게 열어줌으로써, 조선후기 예학 담론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다.

참고문헌

- 李況, 『陶山全書』
李珥, 『栗谷先生全書』
鄭述, 『五先生禮說分類』
鄭述, 『寒岡先生文集』
張顯光, 『旅軒先生文集』
李潤雨, 『石潭先生文集』
李竹舒, 『東湖先生文集』
崔暉, 『訥齋先生文集』
河弘度, 『謙齋先生文集』
宋時烈, 『宋子大全』
朴世采, 『南溪集』
洪柱世, 『靜虛堂集附錄』
黃德吉, 『下廬先生文集』
- 김장태, 「한강 정구의 예학사상」, 『유교사상문화연구』 4·5, 한국유교학회, 1992, 221- 234쪽.
- 고영진, 「17세기 초 예학의 새로운 흐름 - 한백겸과 정구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68집, 일지사, 1992, 102-139쪽.
- 고영진, 「16세기-17세기 예학의 지역적 분화과정과 그 특징」, 『국학연구』 13, 한국국학진흥원, 2008, 17-57쪽.
- 김현수, 「한강 정구의 예학사상 『오선생예설』을 중심으로」, 『동양예학』 6집, 동양예학회, 2001, 67-93쪽.
- 김현수, 「한강 정구의 예학 - 예문답을 중심으로 -」, 『한국학논집』 제48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2, 169-214쪽.
- 노인숙, 「한강 정구의 예학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연구』 제12집, 1999, 163-182쪽.

- 도민재, 「한강 정구의 학문과 예학사상」, 『한국사상과 문화』 18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199-228쪽.
- 박종천, 「한강 정구의 예론과 예설」, 『태동고전연구』 제29집, 태동고전연구소, 2012, 1-25쪽.
- 배상현, 「한강 정구와 그의 예학사상」, 『유학연구』 제3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995, 939-971쪽.
- 李完栽, 「한강 정구 선생의 예학」, 『동방한문학』 제10집, 동방한문학회, 1994, 1-16쪽.
- 정경희, 「16세기 후반 17세기 초반 퇴계학파의 예학- 한강 정구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101집, 일지사, 2000, 92-120쪽.
- 彭林, 「寒岡鄭述五先生禮說初探」, 『남명학연구』 제11집,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1, 295-325쪽.

Abstract

A Comment on the Book named as 'The Classification of the
Five Scholars' Comments about Li-xie in Song dynasty
[五先生禮說分類], Written by Han-gang[寒岡] Jung-gu[鄭述]

Jung, Kyeong-Ju

The book named as 'The classification of the five scholars' comments about Li-xie in Song dynasty[五先生禮說分類], was one of the innovative writings for Li-Xie in Joseon dynasty. That was written by Han-gang[寒岡] Jung-gu[鄭述], one of the famous Li-Xie scholars. This book contains nearly every major statements of the five scholars such as Zhang-zai[張載], Cheng-hao[程顥], Cheng-Yi[程頤], Si-ma Guang[司馬光], and Zhu-Xi[朱熹] in Song[宋] dynasty, for rituals. Jung-gu[鄭述] classified it into five chapter, such as Coming-of-age ceremony[冠禮], wedding[昏禮], funeral rites[喪禮], ancestral rites[祭禮], other manners[雜禮]. And **there are** such comments about family ritual[家禮], ritual of school[學校禮], community ritual[鄉禮], ritual of contries and kingdoms[邦禮], court ritual[王朝禮] and etc in the book. Due to this, many scholars **suspected** it that has received the main impact of **the** book, 'The comprehensive Exegesis of the text and commentaries on the Yi-Li[儀禮經傳通解], written by Zhu-Xi[朱熹]. In this paper, I **do demonstrate** the mistakes of that argument, and I **point out** that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was designed to provide methods and principles in the study of Li-xie[禮學] for Joseon neo-confucian scholars.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of that **were** the principles of propriety[義起之禮], and the etiquette to follow the changing times[禮從時].

Key Word

「The classification of the five scholars' comments about Li-xie in Song dynasty[五先生禮說分類], Jung-gu[鄭述], Li-Xie[禮學], The newly created principle of propriety[義起之禮], Etiquette to follow the changing times[禮從時]

▪ 논문투고일 : 2016.1.12. 심사완료일 : 2016.2.5. 게재결정일 : 2016.2.12.